

세계 경제 동향

- 국제유가, 마·이란 유조선 공방 격화로 100달러 돌파 ■ '26-9-10 로이즈리스트인텔리전스; '26-9-10 알자지라
 - (가격 동향) 9월 10일 두바이유는 배럴당 121.49달러, 브렌트유 107.63달러, 서부텍사스산원유(WTI) 102.48달러를 기록.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는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100달러 돌파
 - 두바이유(현물)가 브렌트유(선물)를 10달러 이상 웃돌아, 중동 현물 수급 차질이 국내 도입 기준 유종에 더 크게 반영
 - (상승 배경) 9월 8~9일 미군이 이란 유조선 5척을 파괴하고, 이란은 호르무즈 인근 선박 10척과 요르단 주둔 미 군기지를 공격하는 등 유조선을 겨냥한 공방이 격화
 -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중이고 미국은 이란 항구에 해상봉쇄를 유지. 9월 9일에는 이라크 영해와 아랍에미리트 인근에서 드론 공격으로 유조선 2척이 피격되어 1명 사망
 - (해상운임) 초대형 원유운반선(VLCC) 운임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, 중동걸프~중국 항로 수익이 일 76만 달러에 도달
 - 8월 중 호르무즈 통항은 비이란계 선박 346척, 원유운반선 112척(7월 72척)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9월 들어 공격이 재개되며 여건이 급격히 악화
- ❖ 중동산 원유 수급 차질로 인한 국내 농자재 수입가격 상승 여부 모니터링 필요

국내 경제 동향

- 8월말 외환보유액 4,422.8억달러, 전월말 대비 143.3억달러 증가 ■ '26-9-3 한국은행
 - 2026년 8월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,422.8억달러로 전월말(4,279.5억달러) 대비 143.3억달러 증가. 2025년말(4,280.5억달러)과 비교해도 142.3억달러 많은 수준
 - (증가 요인)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크게 늘어난 데다 운용수익과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증가가 더해지며 큰 폭으로 증가
 - 자산별로는 예치금이 71.7억달러(231.3억달러 → 303.0억달러), 유가증권이 70.7억달러(3,800.1억달러 → 3,870.7억달러) 늘며 증가를 주도
 - (구성) 유가증권 3,870.7억달러(87.5%), 예치금 303.0억달러(6.9%), 특별인출권(SDR) 157.7억달러(3.6%), 금 47.9억달러(1.1%), 국제통화기금(IMF) 포지션 43.4억달러(1.0%)
 - 예치금 비중은 전월말 5.4%에서 6.9%로 확대
 - (환율) 원/달러 매매기준율은 9월 11일 1,345.9원으로 8월말(1,376.5원) 대비 30.6원 하락하며 원화 강세 지속
- ❖ 외화 유동성 여건은 개선되었으나 중동발 유가 급등이 사료·비료 등 농자재 수입 여건에 미치는 영향 점검 필요

세계 농업·농정 동향

● FAO, 8월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대비 1.9% 상승 I '26-9-4 FAO

- 8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33.3p로 전월(130.8p) 대비 1.9% 상승. 곡물·유지류·육류·유제품·설탕 전 품목군이 동반 상승
 - (곡물 +2.2%) 흑해 지역 수출 차질 지속, 유럽 고온·건조에 따른 생산 전망 악화, 달러 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밀(+2.6%)·옥수수(+2.5%) 등 주요 곡물 전반 상승. 옥수수는 미국 콘벨트 수확량 전망 악화, 에탄올·사료용 수요 강세, 호르무즈 해협 폐쇄에 따른 투입재 공급 우려도 추가 상승요인
 - (유지류 +0.6%) 팜유·대두유 가격 상승이 해바라기유·유채유 하락 상쇄. 팜유는 엘니노 관련 동남아 생산 우려, 대두유는 남미 수출수요 강세가 배경
 - (육류 +1.0%) 가금육·돼지고기·양고기 상승, 쇠고기는 하락. 돼지고기는 EU 중심 상승(고온으로 도축 가능 물량 제한), 쇠고기는 브라질·호주의 대중국·한국 세이프가드 쿼터 소진으로 하락
 - (유제품 +2.3%) 탈지분유·전지분유·치즈 가격 상승 주도. EU 고온·건조로 원유 공급 감소 + 수입수요 지속이 배경, 오세아니아 계절적 증산은 하락 요인으로 작용
 - (설탕 +11.9%) 2026/27시즌 세계 공급 전망 악화가 주요인. EU 사탕무 수확량·재배면적 하향, 브라질 중남부 생산 감소, 인도의 무관세 원당 수입 발표 등이 겹치며 5개 품목군 중 최대 상승폭
- ❖ 8월 국내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국제가격 상승 흐름과 달리 전년대비 3.5% 하락(전체 물가는 +3.1%)하며 안정세. 국제 곡물·유지류 가격 상승이 사료·식품 원료 수입가격에 시차를 두고 전이될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

국내 농업·농정 동향

● 농산물가격안정제, 평년 도매가격 80% 수준 보장으로 본격 시행 I '26-9-10 농림축산식품부

- (제도 개요) 농식품부, 9.10 「제1차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」 개최해 대상품목·기준가격 산정방식 등 세부 운영방안 심의, 근거법(농안법 제16조의4)은 '26.8.27 시행, 심의위원회도 같은 날 신설
- (대상 품목) 2026년 도입품목으로 마늘·양파 우선 선정(작황에 따른 가격 변동성 큰 품목), 연차적 확대 예정
 - 생산자단체는 도입품목 확대를 요구, '27년 예산 국회 심의 결과 반영해 연내 위원회 추가 개최 예정
- (보장 수준 대폭 확대) 기준가격을 평년 도매가격의 80% 수준으로 설정(경영비 전액+자가노동비 포함)
 - 과거 채소가격안정제 대비 보장수준·대상 모두 확대: (보장) 하락분 최대 20%(하한 60% 미만 미보장) → 최대 80%(하한 없음) / (대상) 주산지 가입농가(약 20%) → 10a 이상 재배 전체 농가
- (선제적 수급관리 연계) 지원 조건으로 실재배면적 의무 신고(파종·정식기 경영체 등록) 도입, 자조금 미납 농가는 지급액 차감(첫해 20% ↑), 법정 수급계획 미이행 지방정부는 예산 차등 지원
- (향후 일정) 대상품목·지급비율은 농식품부 고시로 확정, 연말까지 권역별 설명회 진행
- ❖ 농산물가격안정제 미 도입 품목의 연차적 확대 계획 수립 고도화 필요